

Better PEOPLE Better WORLD



표지인물 왕운곤 중국 길림성 당서기장

세계무대에서 중국이 급부상 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가운데 최근 중국이 발표한 동북3성대개발계획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길림성의 대개발계획과 투자 유치전략은 여러 제반사항을 따져볼 때 우리와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중앙위원, 길림성인대상임위 주임으로 길림성 성장을 지내기도 한 왕운곤 길림성 당서기장이 경영자연구회에 나와 길림성의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왕운곤 당서기를 중심으로 한 길림성의 정책과 중국의 동북대개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관련기사10~13면>

2004 June 6

- 3 머릿글
최승부 법무법인 CHL 상임고문, 전 노동부 차관
- 4 월프로그램
6월 프로그램
- 6 화제의 강연
제1회 한·일 국제노동포럼
- 10 커버스토리
왕운곤 중국 길림성 당서기장
- 14 지자체 특강
윤명철 해양문화연구소 소장
- 17 2050·3060 데이트
정기인 한양대 교수, 이수효 평화박물관 활동가
- 20 세상을 보는 눈
장명국 (주)내일신문 사장
- 22 회원&연구원소식
- 26 리더십이야기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28 건강이야기
이진라 프리닉 드 파리 by 리&앤윤 원장
- 29 발행인편지
- 30 이시형 칼럼



언제부턴가 인도인에게 코끼리처럼 친근한 것은

그들의 생활 곳곳에 함께있는 LG전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코끼리처럼
 LG전자는 10억 인도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TV, CDMA휴대폰,
 간병식 냉장고까지 인도 시장 1위에 올라선 이름.
 지금, LG전자의 기술로 인도가 행복해집니다.

대통령에서 아이까지
 그들 모두가 좋아하는 이름 - LG전자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세계 M/S 1위 휘센(4년 연속),
 전자레인지(2년 연속)에서
 첨단 Home Network까지의
 세계적인 경쟁력

디지털 디스플레이 & 미디어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스플레이 & 미디어 제품 및
 6년 연속 세계 M/S 1위의 광 스토리지 사업 기술



이동단말

세계 M/S 1위 CDMA 단말기 등의
 High-end 제품으로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인정받은 이동단말기 기술

시장경제체제와 노동시장정책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 우리의 풀기 어려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정보화와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경제가 5% 내외의 중·저성장 단계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총량적인 고용흡수력이 감소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술·지식·정보·숙련을 갖춘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다수의 고학력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낙후되어 장기실업자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로 누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금융위환 위기와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직된 노동보호 법제와 과도한 노동비용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고용조정과 근로조건 유연화를 도모하려는 노동수요(경영)측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공급에 의하여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근로자의 생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문제는 바로 경제문제인 동시에 사회문제이다. 오늘날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는 노동거래에 있어서도 탈규제·유연화·효율성을 요구하는 반면 그것이 가져오는 실업·지식과 능력의 격차·

분배의 불균형·고용과 교섭상의 지위 약화와 같은 시장결함과 실패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이 어떠한 기초 위에서 자동 조절 기능과 규제를 조화시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남미 국가의 실패로

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은 정책실패를 시장기능을 통하여 치유하는 한편 경쟁이 가져오는 시장실패를 정부의 감시와 규제를 통하여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접근해야 한다.

첫째, 노동력의 시장 진출·입과 이동의 활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정한 유기적 사업과 관계 없이도 3~4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는 계약직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근로자 파견법상의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기간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엄격한 고용보장 때문에 단기고용을 꺼리거나 탈법적인 방법으로 고용하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고 '그럴듯한 일자리'(decent job)만을 찾는 구직자의 직업의식을 바꾸어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3만여명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 한다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도, 문제의 해결책도 될 수 없고 또 하나의 문제의 잉태일 뿐이다. 더구나 그것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이제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기초로부터 고용의 유연화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노사관계 제도에 있어서도 공정질서의 확립과 고능률·유연생산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와 정책의 개편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도 규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고용률 생산과 성과배분, 기술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이 실현될 수 있는 참여와 협력증진의 새로운 경영참가 모델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人間**



최승부 법무법인 CHL 상임고문, 전 노동부 차관

1940년 생 / 64년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93년 송실대 노동법 석사 / 01년 송실대 법학과 박사과정 / 68년 행정고시 합격 / 86년~88년 노동부 노정국장, 노동연수원장, 국립노동과학연구소장 / 89년~92년 대통령 경제비서관 / 93년~94년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 94년~96년 노동부 차관 / 97년~01년 송실대 겸임교수 / 97년~현 순천향대 초빙교수 / 99년~현 법무법인 CHL 상임고문



EU의 제3의 길, 한국에 주는 시사점

1354회 6월 3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박성조 베를린자유대 정치학과 교수

지금 우리 현실은 중복된 대립과 갈등 속에 헤매고 있다. 구태의연한 이념갈등,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이익갈등 이외에 너무나 노골화된 세대간, 지역간, 성별 간, 노사간의 갈등 등이 그것이다. 경제 또한 청년실업, 고령화, 신용불량, 이공계 전공 회피 등 자본주의 쇠퇴기에나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집결해야 할 때이다.

영국총리 블레어, 독일총리 슈뢰더는 99년 '노동당, 사회민주당이 갈 길'이라는 강령을 선포했다. 앞으로는 '좌익이나, 우익이나'가 아니고 '개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세계 경쟁의 관건이며 평등개념을 '결과'로부터 '개개인의 노력과 창의'에 결부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회보장의 천국으로 알려졌던 독일은 미래의 방향을 분배보다 성장과 고용쪽으로 바꿨다. 작년 말 독일 연방국회에서 여야당이 통과시킨 '개혁2010'은 슈뢰더의 리더십과 여야합의의 결과였다. 실업자가 450만 명을 돌파하고, 특히 청년실업자수가 치솟고 있는 와중에서 마침내 개혁의 막차를 탄 셈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정의하고 그것의 실현을 가속해야 한다. 또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쟁력 위주의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국가전략방향에 대한 거국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강한 시장, 작은 정부'보다는 '활기있는 시장, 활기를 주는 정부'가 필요할 때이다.

금번 연구회에서는 베를린자유대학(FU) 내 유일한 한국인 원로교수로서 한국학과 출범의 산파역을 맡았으며 서울대 BK21 교수로 재직중인 박성조 교수를 초빙하여 EU의 제3의 길과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서울대 정치과 졸업(1959)
- ▲ 독일 빌즈부르크대, 베를린대, 프랑스 소르본느대에서 경제학, 정치학, 후진국 개발정책 수학 및 연구
- ▲ 베를린대에서 박사학위 취득(1963)
- ▲ 독일 보훔대에서 사회과학분야 교수자격 취득(1973)(동양인으로 최초)
- ▲ Saar대 후진국 개발정책 연구(1964-68)
- ▲ 타이완대 개발정책 연구, 자문(1966-67)
- ▲ 보훔대 동양학부 학장 및 부학장(1975-77)
- ▲ 베를린대 정교수(1978-현)
- ▲ 구아경영학회 설립 회장, 부회장, 이사(1982)
- ▲ 베를린대 사회과학부 부학장 및 학장(1984-88)
- ▲ 연변 과기대 부총장(1993)
- ▲ 독일 국제사이버대 총장(1998-02)
- ▲ 베를린대 Intercultural Competence Panel 책임자(2000)
- ▲ 유고 megatrend university 외국인 총장(2002)
- ▲ 서울대 행정대학원 BK21 교수

6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공을 위한 간부의 조건

1355회 6월 1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경영에서는 주어진 틀 안에서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변화를 선도해 조직을 관리하고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리더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최고경영자를 조직의 가장 중요한 리더로 생각해왔고 경영자들은 조직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업무성과를 높이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금전적 보상을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금전적 보상 못지 않게 칭찬과 같은 감정적 보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조직원들은 경영자의 마인드보다도 함께 일하는 직속 상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견해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견해 속에 '간부가 바로서야 회사가 산다'고 주장하면서 경영자의 역할보다 직원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중간 간부들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이 출간한 '이런 간부는 사표를 써라'이다. 지금까지 많은 리더십 관련 출판물이 있었지만 중간 간부의 리더십 지침서는 흔치 않았다. 공 소장은 직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함께 일하는 직속 상사와의 갈등 때문이라며 간부는 소속 부서 직원들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근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간부가 바로서야 조직이 발전하는 것이며 회사를 살리는 간부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경제, 경영서적 출간과 기업체 강연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기업성공을 위해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리더십과는 다른 중간간부의 리더십과 간부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1983)
- ▲ 美 라이스대 경제학 박사(1987)
- ▲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1988-90)
-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실장(1990-97)
- ▲ 日 나고야대 경제학부 객원연구원(1992-93)
- ▲ (재)자유기업센터 초대소장(1997-99)
-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1999-현)
- ▲ 자유기업원 초대원장 및 창립자(2000)
- ▲ (주)인티즌 대표이사(2000-01)
- ▲ (주)코아정보시스템 대표이사(2001)
- ▲ (주)한국선물결제 이사, 교보생명(주) 사외이사(2002-현)
- 〈상훈〉 제7, 8, 9회 자유경제문화상 수상
- 〈저서〉 이런 간부는 사표를 써라, 두뇌가동률을 높여라,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3040 희망에 베풀라라 외



역사인물을 통해 배우는 오늘의 리더십

1356회 6월 1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이화 역사학자

역사란 진정 무엇인가. E.H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 우둔한 눈을 거두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은 역사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과거 사실의 있는 그대로의 복원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는 첫째, 사료의 제한성으로 과거를 밝혀줄 사료는 완벽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료의 객관성으로 과거를 밝혀 줄 사료는 그 자체가 이미 당시 기록을 남긴 사람의 주관적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역사 연구의 기본 태도로 삼아야 하지만 필연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여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다할 한국통사가 없었던 현실에서 한국사 5천년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생활사·문화사를 중심으로 풀어내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한국사 이야기」가 전체 스물 두 권으로 완간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구수한 입담과 해박한 역사지식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학자이자 저자인 이이화 선생은 1994년 집필을 시작하여 '우리 역사 바로 읽기', '읽히는 역사책'을 쓰기 위해 꼬박 10년이란 시간을 글쓰기에 몰두해 과업을 이루었다. 특히 저자는 역사가 반드시 고급영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며 민중의 삶과 일상생활의 역사를 충분히 다루면서 역사용어의 새로운 정의에 의미도 부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평생을 우리의 민족사, 생활사, 민중사를 복원하는 데 열정을 기울이며 역사의 대중화에 공헌해 온 이이화 역사학자를 초빙하여 역사 속의 인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서라벌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졸업
- ▲ 불교신문 근무
- ▲ 민족문화추진회 근무
- ▲ 서울대 규장각 근무
- ▲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소장
- ▲ 동학농민전쟁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 ▲ 동학100주년 기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상훈〉 제7회 심산상, 제15회 단재상(학술부문)
- 〈저서〉 한국사 이야기,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이야기 인물한국사, 조선후기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한국의 파벌, 허균, 우리 겨레의 전통생활, 역사와 민중, 한국사의 주체적 인물들 외



철학에 기초한 경영 기본에 충실한 경영

1357회 6월 2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현조 전 LG전자 회장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이나 경영역량에서 나오지만 개방된 시장, 창의력이 존중되는 시장에서는 윤리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기업 활동이 지속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의 한국 기업들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는 가치관에 입각하여 기업이 스스로 경제의 과정을 규제해 나갈 수 있어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영 시대에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의 자질이 있다. 하나는 일의 전문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문화시민으로서의 가져야 할 취미와 안목을 갖춰야 한다. 다른 하나는 세상에 나와는 다른 가치관에 입각해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고객의 니즈를 이해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50년대 말부터 기업인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1976년 LG증권 사장에 취임한 이후 30여년 동안 럭키금성 기획조정실, 금성반도체, LG상사, LG전자에서 CEO를 역임했으며, 현재 LG전자의 자문역으로 재직중인 이현조 전 LG전자 회장을 초빙하여 인의를 중시하는 기업윤리와 시대가 요구하는 경영자의 경영마인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고로 이현조 회장은 LG전자 CEO 재임 시절 격렬했던 노사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사문화를 개척하였으며, '붉은 신호면 선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라면 초가삼간이라도 태운다'는 역발상의 경영과 기본에 충실한 경영을 추구하여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 서울대 철학과 졸업(1957)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 국제증권 대표이사사장(1976-78)
- ▲ 럭키금성그룹 기획조정실 실장 겸 희성산업 사장(1978-84)
- ▲ 금성반도체 사장(1979)
- ▲ 럭키금성상사 대표이사사장(1984-88)
- ▲ 금성사 대표이사사장(1989-92)
- ▲ 금성사 대표이사부회장 겸 사장(1993)
- ▲ LG전자 대표이사회장 겸 가전미디어 CU장(1995)
- ▲ LG인화원 회장(1996-98)
- ▲ 민족문화추진회 이사(1996-현)
- ▲ LG전자 고문(1998)
- ▲ LG전자 자문역(2004-현)
- 〈상훈〉 동탑산업훈장, 금탑산업훈장,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공업협동조합 공로패
- 〈저서〉 커뮤니케이션의 유토피아(공편), 붉은 신호면 선다

실업대란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최 : 인간개발연구원 공동주관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재단 일시 : 2004. 5. 13 14~16:00 장소 : 한국경제신문 다산홀
후원 : 노동부, 한국경제신문, 한겨레신문, 시민의신문, 오마이뉴스, 내일신문, 에어텔(주)

화제의 강연



주최 : 인간개발연구원 / 장소 : 한국경제신문 다산홀 / 공동주관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재단

제1회 한·일 국제노동포럼 실업대란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근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대란, 특히 청년실업이 세계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청년인력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각국이 청년고용기회 확대와 우수인재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의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경제, 사회, 교육의 문제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인간개발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노동연구원과 국제노동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제1회 한·일 국제노동포럼'을 지난 5월 13일에 개최하여 교육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보다 입체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실업대란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편집자 주

<주제발표1> 일본 노동시장 서비스의 현황과 고용관행의 변화
 기노우찌 히로미찌 (주)학생후원회 이사



일본은 고도성장을 하면서 전국 실업률 2%대를 유지했다. 선진국 중에서 우등생에 포함됐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하면서 5%로 상승했다. 그 이후 5%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달 처음 이를 밑돌아 4.7%로 내려가게 됐다. 25세까지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서는 등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의 특징을 보면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근로자의 모집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업 총인건비 억제, 서비스화가 주요 원인이다.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프리타(직장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가 유행하고 있다. 통상 35세까지를 말한다. 그러한 사람이 200만명 정도 되고, 파견사원과 실업자 등을 합치면 약 400만명 정도 된다. 여기서 프리타가 증가하는 것은 가족제도가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최근 탈공업화를 맞이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는 아직 문화가 많이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여성들은 집에서 주로 소비를 많이 해 왔고, 가사를 돌봐왔다. 어머니가 자식을 손에서 안 놓고 언제까지 데리고 있으려 하고 있다. 자립을 시켜야 함에도 부모 밑에서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립을 못하고 프리타가 된다. 더 심할 경우 계속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

그 다음 행정의 대응 부분이다. 일본의 행정개혁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일본은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이 보수적인 면이 있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서비스나 상황은 잘 변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 중에 유럽 호주 등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구입하여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이 되고 있다. 일본은 99년 'ILO 181호조약'을 비준했다. 이때까지 고용문제는 정부에서 담당해 왔다. 181호 조약은 '관(官) 민(民)'이 협조하자는 취지에서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것을 비준한 것은 99년 8월이지만 12월부터 실제 시행됐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官) 민(民)이 직업정보넷이라는 구인안전센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 사이트에는 100만 건 가까운 구인 정보가 게재돼 있다. 올해로 시작된 것이지만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는 민간이 지원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을 통해 취직한 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사업자에게 600만원이 지원된다. 성공보수 형태로 관이 민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청년 고용대책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시작됐지만 일본판 '잡 카페

(JOB-CAFE)'가 만들어졌다. 직업훈련과 체험을 세트로 하는 방식이다. 지역기반과 연결해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잡 카페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교육관계자, 기업이나 사업의 담당자, 인재비즈니스 담당자 등이 한 자리 모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가능한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때문에 행정서비스는 비용 문제 뿐 아니라 질의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관이 주가 되고 민이 보조역할을 해 오는 시스템이었는데 민이 주가 되고 관이 부가 되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이 일본 내에서는 공통된 의견이다. 기본적으로 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민에서 먼저 하자는 입장이다. 장애인 등 취직이 곤란한 사람들은 관이 해야하겠지만 지금은 민이 주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2> 한국의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과 과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우리나라가 고용 없는 성장시대 접어든 것 아니냐고들 한다. 대개 1% 경제 성장을 하면 일자리를 평균 5만에서 10만개 정도가 늘어났다. 작년 우리 성장률은 3%였는데, 과거 추세를 본다면 적어도 15만개 늘어났어야 했다. 하지만 작년 일자리는 오히려 3만개가 감소했다. 한국경제가 조로현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접어든 것은 아니며 접어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1 3월 통계를 보면, 2 3월에만 50만개 이상, 4월에도 작년 4월에 비해 30만개 이상이 늘어났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아직은 일자리 창출 능력 자체가 최악은 아니라는 말이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 전망은 어떠한. 우선 일자리는 성장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보면 80년대는 8%대 90년대는 6%대로, 2000년대는 5%대로 떨어졌다. 구조조정, 개혁에 실패한다면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미시적으로, 기업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역량이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 때문이 아니냐했는데 확실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력은 약화되는 추세인 것이 분명하다.

15세 이상 인구 중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03년 59%, 선진국의 경우 소득 3만 달러대의 국가는 70%를 넘어선다. 소수의 사람만이 장시간 근로를 해서는 1인당 소득이 2~3만불이 되기 힘들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일해야 하는데 고용률의 정체현상이 문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전반이다. OECD 국가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60% 정도 된다. OECD 선두그룹은 아니더라도 평균이라도 되려면 110만개의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과거 근육노동, 장시간 노동이 경쟁력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이다. 여성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일류가 되기 힘들다.

두 번째는 고령자 일자리이다.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있다. 고령자는 기업으로부터 퇴출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경험, 기술, 경륜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지적 능력, 지혜, 경륜과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회도 지속적인 발전은 어렵다. 55세 이상 중·고령자만 보더라도 비경제활동 인구에 450만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분들을 조사해 보면 '나도 기회만 닿으면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 이중 20%만 잡아도 90만명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도 이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그 다음은 청년층 문제이다. 4월 청년층 실업률이 7.8%이다. 균형상태는 8%, 40만명 내외이다. 선진국은 청년층 실업률이 15~20% 가까이 된다. 하지만 과연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의 강도가 8%대일까. 40만이지만 실업자로 잡히지 않으면서 쉬고 있거나 구직활동하지 않거나 하는 이른바 '청년백수'가 그 이상이 된다. 그래서 광의의 개념으로 '청년 실업자+백수'를 하면 100만명 정도가 된다. 실업률은 거의 20%에 육박한다. 청년백수는 평생백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30~40대에 가도 일자리를 못 갖게 되고 사회가 부담해야 하기에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큰 문제이다. 여성일자리, 고령자, 청년 모두 합쳐 20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양적 일자리 공급이 아니라 공급해야 하는 일자리의 구조적인 불균형 심화가 문제이다.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을 나오면 전문직, 기술직, 행정직, 관리직 등 좋은 직장을 선호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문직 일자리 비중은 대단히 낮아 19%이고 전통적 3D업종은 가지 않아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하다.

외국인력 40만이 일하지만 중소기업 인력난은 10~14만명 정도 된다. 한편에서는 실업자가 80만명이 있지만 다른 한편의 40만,



채워지지 않는 10만개 이상, 50만 이상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양적 수의 불균형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자영업자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다. 농업부문, 동네 구멍가게 형태의 비중이 매우 높아 26% 가까이 된다. 이런 반면 97년 이후에 500인 이상 기업, 안정되고 봉급도 높은 일자리 구성비가 93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17%였는데 2001년이 되면서 10% 미만으로 감소한다. 8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대신 2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의 일자리는 2001년 55%로 늘어나게 된다. 구조조정과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과 하도급 기업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즉 양적인 팽창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고용안정이 가능한 일자리로의 고급화가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 첫째 과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개혁해야 한다. 세계화 강국, 인적자원 강국, 노사협력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화개혁은 글로벌 표준으로 바뀌 가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가지는 제도문화, 조직을 글로벌 표준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유연한 인적자원의 활용만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다만 이때 노동시장의 유연성에는 기업의 해고의 자유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유연화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같이 해야 한다. 글로벌 표준에 맞춰나가면서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 사회안전망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나가지 않으면 세계적 표준으로 정착시키기 힘들 것이다.

두 번째로 학습혁명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인류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본다. 모든 사람이 학습인이 되고, 기업 조직은 학습조직, 국가는 학습국가가 될 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핀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 미국 등 성공한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다.

세 번째가 노사관계 개혁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다투고 갈등이 많으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법과 원칙이 산업현장에 확립되어서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십은 기업 수준 뿐 아니라 전국 수준으로 확산돼야 한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대표적 후진국이었지만 82년 대타협 이후 기적을 만들었다. 노사혁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역량이다. 보육, 독거, 환경, 안전, 숲가꾸기 등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 부분이 선진국 20~30%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다. 당장 확대하면 정부 재정문제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높여갈 수 있다고 본다. 이 자체가 일자리 만들 뿐 아니라 독거노인 보호, 장애인 보호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 못하는 유능한 주부들이 노동시장으로 끌어내져 성장의 원천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다. 좋은 기업도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해서 지역에서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패널1〉 김대모 중앙대 교수



지속가능한 일자리, 고용안정이 가능한 일자리 등도 중요하지만 첫째, 기업에게 투자전망이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철폐 등 이런 것은 민간부문에 나쁜 영향을 주고 투자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대만을 예로 볼 때 우리나라는 1.5배로 고임금이다. 정부의 재벌개혁정책과 강성노조가 실업난의 '주범'이라고 본다. 노사정 모두가 노력해야겠지만 노동계의 양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이 정부가 성장 우선으로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갈 정도로 정책기조를 정해줘야 한다. 둘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도 구조적 불균형을 조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사, 노-노, 사-사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기업과 노조의 관계, 대기업 중소기업의 차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 등을 말한다. 그런 결과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전체를 위해서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은 임금이 중소기업의 1.7배가 넘는 대기업의 노사가 솔선해서 해줘야 하고 이 모든 것은 국가전체적인 불공정 거래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패널2〉 조경원 노동부 고용정책과장



노동부는 2008년까지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 고용 복지정책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채우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 등에서 사회복지 부분과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 중이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유한킴벌리 사례와 같은 교대제개선, 경영혁신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시 장려금 지급, 휴무조의 교육훈련비 지원 등도 검토 중이다. 중요한 과제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매치시킬 수 있는 고용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현행 고용안정센터를 종합센터와 일반센터로 개편 선진국형 인프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전망을 세워서 세계적인 인력양성이 활용 가능하도록 인력수급전산시스템을 2005년까지 추진하려고 한다. 이것은 노사정 국민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패널3〉 이덕진 유한킴벌리 전무



기업경쟁력의 원천을 보면 환경친화적인 부분 청정생산기술, 투명경영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인정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성공적인 기업의 전제조건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주제로 접근하여 4조예비조 경영, 평생학습 재충전 제도, 끊임없는 혁신체제가 유한킴벌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인건비와 교육훈련비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지만 미래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수립, 프로세스 혁신, 정보처리 시스템 등 수많은 부가가치 창출에 투입시켜 본인에게도 재충전이 가능하고 회사도 혁신을 가져오는 '생산성, 화합, 일자리'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최근에는 직무교육과 교양강좌를 섞어 연300시간의 교육을 한다. 그리고 선택된 건수로만 계산해도 1인 10건의 제안활동과 충분한 휴식으로 최근 3년간 거의 무사고의 산재율을 보였다. 시간당 15000개에서 22000개로 생산성이 올라갔다. 연간 공장 가동률 또한 360일이다. 이제는 교육을 통해 전직원이 모든 파트의 기계를 운전하고 나아가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 김벌리클라크 본사는 동북아시아 인사권을 유한킴벌리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영적인 쾌거도 있었다. 중국 법인도 이러한 경영방식을 배워 가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혁신'을 위한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널4〉 이형모 시민의신문 대표



일자리는 생계를 벌어들이는 활동이 아닌 사회적인 역할이다. 최근 가장들이 모든 사회적 역할을 빼앗기고 소외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사회적 충성심을 철화하는 위기적 상황이다. 오늘날 모든 선진정부가 국민의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정책목표이다. 공공부분 예산을 절약하여 그 부분을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기업도 인재육성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교육기관도 고시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타인과 사랑을 나누는 목표로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인적자본이라는 것이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목표가 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출입국을 사람입국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국민은 관전자도 아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정부와 민간기업의 실패를 다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적 당사자가 대표를 조직하여야 한다. 노사정은 모두 다 실력있는 이해 집단 사회적 강자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실업자대표, 여성대표, 노인대표는 들어가 있지 못하고 이것은 국민적인 대표성이 없다. 사회협약운동을 시작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人間



“길림성과 한국은 오랜 경제 무역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양측의 경제 무역거래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2003년 길림성과 한국의 무역 총액은 7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 기업 투자액은 길림성에 투자한 55개 국가와 지역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3성 개발시대를 맞아 한국의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

지난 4월 22일 인간개발연구원 경영자연구회 강연에 나선 왕운곤 중국 길림성 당서기장의 말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반도와 인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동북3성 대개발계획에 따른 외자유치의 일환에서 마련된 길림성 대표부의 발언이라 양측 참석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왕운곤 당서기는 중국 중앙위원, 길림성인대상 임위 주임으로 길림성 성장을 지내기도 한 중국 내 주요 인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길림성이 동북3성 개발시대의 중심에 위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대변해 주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중국은 이제 국제무대 전 분야에 걸쳐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성장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이에 이번 호 커버스토리에서는 왕운곤 당서기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이 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세미나 내용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길림성을 중심으로 흑룡강성, 요녕성 등 동북3성 개발배경 및 외자유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지면을 마련하였다.

- 편집자 주

도약을 꿈꾸는 중국의 동북3성 그 중심 길림성의 현재와 미래

왕운곤 중국 길림성 당서기장

동북3성 대개발의 배경과 의미

동북3성은 흔히 '만주'로 불리는 곳으로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이끄는 4세대 지도부가 지난 1999년 서부대개발을 발표하자 4년 만인 지난해 말, 동북3성의 종합개발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동북지역은 과거 중국의 주요 공업기지 중 하나였다. 구 소련의 지원과 석유, 석탄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 철강과 조선 등의 대형 중공업이 발달해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 중공업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이 일찍부터 발달해 전국에서도 선진적인 교통망

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며 동북지역의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했고, 노후된 설비와 낙후된 기술,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중국 평균을 웃도는 30%가 넘었으며 국유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동북지역이 이렇게 낙후된 주요 원인은 체제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다. 계획경제관리모델에 따라 국유기업이 지역 경제 발전을 주도해왔고 중공업과 전통산업의 비중이 크며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해 최근 발달된 지역에 비해 설비나 기술이 낙후된 것이다.

결국 이 지역은 개혁·개방 20년 동안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왕운곤 당서기장

1966년 중국 천진대학 졸업 / 68년~82년 길림화학공업회사 기술원, 분공장장, 회사당부서 기장 / 82년~83년 길림시 부시장 / 83년~86년 길림시 당부서기장 겸 길림시 시장 / 86년~88년 길림성 기계공업청 청장 / 88년 길림성 체제개혁위원회 주임 / 88년~89년 길림성정부 부비서장 / 89년~92년 길림성 부성장 / 92년~95년 길림성 당상무위원, 장춘시 당서기장 / 길림성 대리성장 / 96년~98년 중앙위원, 길림성 성장 / 98년~현 중앙위원, 길림성인대상 임위주임, 길림성 당서기장

이에 중국은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및 기계설비의 현대화, 계획 경제의 잔재 청산과 시장 메커니즘의 전면 도입을 내세워 '굴뚝산업'을 개조하고 '부실과의 전쟁'을 통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동북3성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경제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막대한 재정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통해 노후설비를 현대화하고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동북3성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근접해 있는 특수 상황으로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어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동북3성 대개발이 본격화되면 한국기업들에게 있어서는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준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길림성은 어떤 곳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길림성은 면적 18만7천km², 인구 2천5백만으로 한국 면적의 2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우리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조선족 2백만 중 1백20만이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은 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의 중국 동북부로 이루어진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일찍부터 만주족과 몽고족, 조선족 등의 소수민족이 유목과 임업, 상업 등의 산업에 종사하며 사회·경제발전을 이끌어왔다.

특히 길림성은 최근 동북대개발 바람을 타고 모든 부문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가장 중점적인 분야는 부실과 비효율의 대명사였던 국유기업의 비중을 낮추고 벤처마인드로 무장한 기업과 민영기업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은 물론 경제 각 부문에서 시장화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길림성 구조개혁의 1차 목표이다. 또한 길림성은 평균학력 정도가 중국 성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교육수준이 뛰어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적자원 및 천연자원에 외자만 적절히 결합된다면 동북지역 발전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길림성의 투자유치 전략 및 정책방향

왕운곤 당서기는 동북3성의 대개발 계획에 대해 '동북지역의 전통공업기지에 대한 조정 및 개선작업은 연해경제특구 건설, 포동신구 개발 및 서부 대개발에 이은 21세기 최고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표현을 했다.

최근 길림성은 동북대개발 프로젝트에 맞춰 기간산업과 우위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동차와 석유화학, 농산물 가공, 현대중의약·바이오 메디슨, 광전자 하이테크 등 5개 전략산업을 발표했다. 길림성은 이 5가지 전략산업 외에 관광개발과 신행 전자제품, 고등직업교육 등 '돈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외국의 선진 기술, 설비, 자본 등을 적극 유치해 길림성 전체를 개방형 경제체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길림전통공업기지진흥계획요강"을 제정하여 재정최소 정책적 측면에서 전통공업기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대정책에 근거하여 길림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첫째로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나가고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의 감면 및 환급 등 세금우

대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외자기업이 편리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등록시간 단축, 신속한 통관, 물 전기 가스공급 보장 등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M&A, 지분참여 등의 방법을 통해 외국자본이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제도개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중국청년보 서울특약기자로 있는 김영옥 기자가 왕운곤 당서기의 방한 길에 수행하며 느낀 단상들을 전하는 글이다.

- 내가 만난 왕운곤 당서기 -

"첫 만남인데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가득했죠. 왕운곤 당서기 같은 인물이 현재 중국에 약 백명쯤 되나요? 그 양반을 보고 나서 '중국에 저런 저력 있는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서 이끌고 있기에 불가사의한 중국의 생명력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왕 서기를 만났던 어떤 한국 언론사의 고위간부가 나에게 왕 서기 같은 인물이 중국에 얼마나 되냐고 집요하게 물어왔다. 정확한 대답이 공했던 필자는 그냥 "매우 많을 겁니다"하고 얼버무렸다.

필자도 금번 왕 서기가 LG와 삼성을 방문하는 길에서 단독 수행했던 경험을 통하여 많이 놀랐다. 그와의 대화를 돌이켜 볼 때면, '잠간의 대화가 10년간 독서에 매진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與君一談, 勝讀十年書)'는 중국의 고사성어를 떠올렸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서적을 비롯해 방대한 분량의 고금중외 명작을 精讀한 그의 학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그리고 잘 알고 다져진 학식에서 우리나라는 학문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듣는 이에게 전해졌다. 내면 깊이 우리나라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소박함 역시 진정한 큰 리더의 모습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했다.

이번 방한 길에서 왕운곤 서기를 가까이서 단독 수행하며 잠간의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나는 개인적인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중국이라는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



-김영옥 중국청년보 서울특약기자-

다음은 왕운곤 당서기의 강연 전문이다.

한중경제협력의 새로운 과제와 전망



나는 오늘 여러분께 중국 동북지역 전통공업기지의 중요한 구성부 분인 길림성의 계획과 구상 및 투자환경 그리고 길림성과 한국의 협 력 기회에 대해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동북지역의 전통공업기지에 대한 조정 그리고 개선작업에 대한 지원 은 중국정부의 연해경제특구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포동신구 개발 및 서부 대개발 전략에 이은 21세기 초 전면적인 샤오강(小康)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내린 또 하나의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다.

길림성은 중국 동북지역 전통공업기지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양 호한 가공공업 발전기반과 과학기술과 뛰어난 인력을 보유하고 있 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과 편리한 교통운수조건을 갖춘 전반적으 로 볼 때 훌륭한 발전기반과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정부가 동북지역 등 전통공업기지 진흥 전략 실행을 결의한 후 길림성은 길림성 전통공업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전략적 배치와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길림성 전통공업기지 계획 요강을 제정했다. 우리 는 전면적 샤오강(小康)사회건설목표를 위주로 기간산업과 우위산 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며 자동차 석유화학, 농산물 가공, 그리고 현대중의약과 생물의학, 광전자, 정보통신 등 첨단과학, 기술산업 등 5대 기지 건설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전통산업 조정작업

을 가속화하고 약음, 기계, 건축재료, 경공업, 방직업 등 산업을 적극 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존 발전을 가속화하고 자원형 도 시와 지역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친환경적인 안전한 현대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농업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대적인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길림성 전통공업 기지의 재도 약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길림성은 지역적 우위를 한층 더 살려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며 길림성 전통공업기지의 진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동북지역 등 전통공업기지를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길림전통공업기지진흥계획요강>을 제정하였다. 즉 재정최소 정책적 측면에서 전통공업기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길림성은 중앙정부의 동북전통공업기지진흥에 대한 관련 우대정책에 근거하 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우대정책을 제정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난 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 장려 관련 정책을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기간 산업과 우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서의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외국인 보유 지분 비율에 대한 제 한을 완화해 나갈 것이며, 외자기업 신규 투자 기계설비 부가가치세 를 감면하며, 외자기업이 길림성에 대한 재투자를 장려하고, 수출기 업 혹은 선진기술기업 확장에 대해 전부 혹은 재투자부문에 해당하 는 기납부 기업소득세 전부를 환급하며, 외자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세수우대정책기한 만료 후 3년 이후부터 15%의 기업소득세율 을 적용하도록 하며, 외자기업은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길림성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을 유상취득 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사용양도 기한은 최장 70년으로 하게 된다.

둘째, 외자기업 경영에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외자기업 등록시간을 단축하고, 외자기업에 편리하고 빠르게 통관되도록 하며, 외자기업 생산경영에 필요한 물, 전기, 가스



등 공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효과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외국인 소송사건 협조처리 시스템과 정책, 법규, 감독, 감사 시스템을 정비하며 소프트환경 파괴 책임 추적제도를 실행할 것이다.

셋째, 외국자본이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제도개혁 참여를 장려할 것이다. 예를 들면 M&A, 지분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유기업 제도개혁, 불량자산 처리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미 국가전통공업기지개조 계획에 편입된 국채프로젝트의 외자이용을 지원하며, 외국인 기업이 국유기업에 대한 M&A이후 채무조정 처리, 인력 배치와 재취업 등 측면에서 국가의 전통공업기지개선에 대한 사회기능 부담 우선감량 정책과, 불량자산 처리와 인력 배치 등의 관련 우대 정책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국유기업 M&A 후 설립한 허용유형의 외자기업은 국가규정에 부합될 경우 장려 유형의 정책을 향유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출 규모를 감안하여 경영범위의 제한을 완화하도록 할 것이다. 외국인이 자산관리회사를 투자, 설립하도록 허용하여 지방기관과 국유기업의 불량자산을 합법적으로 구매하도록 인가할 것이다.

동북지역 등 전통공업기지진흥전략 실행은 중국동북지역과 길림성의 빠른 발전에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국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창업하고 발전하는데 더 새롭고 큰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길림성과 대한민국은 오랜 경제 무역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양측의 경제무역거래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2003년 길림성과 한국의 무역총금액은 7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으로부터 1억 1천만 달러를 수입함으로써 한국은 이미 길림성의 가장 중요한 수입국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길림성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1,123개에 달하며 실외자비용금액은 4.9억 달러이다. 또한 한국 기업 투자액은 길림성에 투자한 55개 국가와 지역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길림성에 투자한 한국기업 중 일부는 이미 비교적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한 경제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등 전통공업기지진흥전략 실행은 길림성과 한국의 무역투자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런 기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과 국유기업 제도개혁, 구조조정에 관해 한국기업들의 참여와 M&A에 편리한 여건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둘째, 산업구조조정과 주력산업최적화 업그레이드는 한국기업들의 제품과 기술 수출에 넓은 무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셋째, 시장시스템의 완성과 경제생활 시장화 가속화는 길림성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영에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며, 중한 양측의 무역과 투자가 날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기업들이 귀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협력 영역을 넓혀가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오늘, 생산 요소의 세계적 배치와 국가간 산업 이전이 날로 가속화하는 가운데 원가를 낮추고 시장영역을 넓히는 것은 모든 기업의 공통된 목표이다. 길림성과 한국기업들은 이미 훌륭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길림성전통공업기지진흥 과정에서 양측이 진일보로 더 훌륭한 협력점을 찾아내어, 각자의 우위를 활용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며, 양측의 경제 무역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人間)



인천지역의 역사적인 역할과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

제1회 『인천 모닝 아카데미』, 2004년 4월 22일

인간개발연구원은 10여년 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처음 문을 연 『인천 모닝 아카데미』는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혁신 및 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공직자로서의 기본교양과 국제화시대의 세계적인 안목과 자질을 갖춘 수 있는 폭넓은 소양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동북아의 물류 중심과제 및 IT, BT 등의 첨단과학 분야의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카데미라 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지난 4월 22일 '인천지역의 역사적인 역할과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란 주제로 열린 첫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윤명철
해양문화연구소 소장

1954년 생 / 역사학 박사 / 83년 대한해협 뱃목 학술탐사 / 88년~현 일본속의 한민족 사 탐방 담당강사 / 94년 해군사관학교 초빙교수 / 94년~현 조선일보 대마도 역사탐방 강의, 고구려 문화유적 탐방 / 96년 고구려지역 기마문화 탐사(43일간) / 현 동국대 사학과 겸임교수, (사)고구려연구회 이사, 지구문화 편집위원, 작가회의 부회장, 해양문화연구소 소장

내가 뱃목탐험을 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해양사를 전공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고대에도 중국에 강남지역과 우리 경기만 지역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집요하게 동이지중해라든가 장보고라든가 하는 뱃목의 이름을 붙여 가면서 자꾸 경기만 또는 인천항에 도착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21세기 생존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가지고 나온 제목은 '인천지역의 역사적인 역할과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이다. 늘 그래왔지만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바로 세계의 중심에 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계질서의 재편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문제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그 세계의 변화를 사람들은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한다. 즉 이러한 글로벌리제이션이 추진되면서 세계는 점차 몇 개의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집단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94년에 나프타를 발효시켜 북미가 하나가 되어 아주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경제공동체가 수립이 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전 미국을 하나로 하는 경제공동체가 수립이 된다고 한다. 반면 유럽은 경제공동체를 거쳐 지금은 EU가 성립이 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는 크게 미주세력과 유럽세력이라는 양대 세력으로 나누어 진 것이다. 그러나 세계를 이 두 질서 속에 맡겨둔다면 18세기 이후의 세계질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서구인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바로 우리가 있는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구도 속에서 동아시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동아시아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공동체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이 공감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수립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나라는 일본이다. 러시아 역시 나름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소한도로 자기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권이론을 구상했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많은 경제권 이론들을 구상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우리가 잘 몰랐었지만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발전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1979년부터 등소평이 바로 경제특구 전략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다시 20세기 경제개발 구역 등으로 결국 성공을 한 것이다. 이처럼 황해경제권, 발해경제권, 동북아경제권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경제권 이론을 내세우면서 동아시아가 들끓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자국의 패권확보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동아시아의 공동체 수요를 위해서라도 각국은 수많은 경제권 이론을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는 그 이론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첫째, 각국이 가지는 경쟁과 갈등의식이 문제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경제권들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내지는 각 나라간에 서로 하다보니 중복과 난립현상이 아주 심각해진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조그만 원들간의 교류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중복과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체를 보는 하나의 틀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자집단주의는 강해진다. 동아시아도 공동체를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그 마지막까지 누가 더 지분을 많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한국, 일본, 중국간의 갈등과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4위이고 해군력은 세계 2위이

다. 중국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 계속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군비를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셋째,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항할 수가 없지 않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안되고 중국의 경우도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나는 뒤떨어진다고 본다. 결국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고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구화라는 과제 속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과제 속에서 또 우리민족의 자존이라는 과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거기에 바로 경기만과 인천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중해 개념으로 본 인천과 경기만의 중요성

내가 동아시아중해 해양문화라고 그랬는데 이는 동아시아를 지중해로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가 육지의 질서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지역, 중국지역, 일본지역을 보면 이 세 지역간의 교류는 전부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육지사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양과 대륙을 포함한 해륙사관에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중해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나 이테리 반도처럼 우리가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교류는 우리를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중해의 개념으로 볼 때 동아시아는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우리지역의 역할분담이 뚜렷해지게 되고 특히 우리의 역할분담이 여기서 분명해 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동아시아중해라는 개념과 모델을 설정하고 그런 입장에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코아 역할을, 역학관계를 조정해야 하며 또 허브역할도 해야 하고 문화적으로 I.C 역할도 해야 한다.

인천지역, 경기만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자.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산동반도를 통해 청도 → 지금의 대련 → 신의주 → 인천 → 남쪽(김해) → 일본으로 가는 항로가 있었다. 또한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제나라의 환공, 즉 관자시대 때 교역을 한다는 내용이 중국의 사략에도 나온다.

또 하나의 항로는 상해 밑의 영파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의 서남부에 도착하여 북쪽이나 남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다. 이것을 실증하기 위한 것이 96~97년도의 뗏목항해였다. 뗏목으로 항해를



했을 정도이니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고대인들, 선사시대 인들도 항해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영종도, 김포, 일산, 고양 등지에서 발견되는 법씨의 종류를 가지고 일찍부터 강남지방과 교섭했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에도 인천이 있는 경기만 지역은 동아시아 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A.D 3세기경에 중국의 사료를 바탕으로 내가 복원한 항로에 의하면 산둥반도를 출항하여 인천으로 들어갔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징검다리 형태로 거쳐 일본으로 들어가는 고대항로가 나타난다. 이것을 연안항해라 하는데 이처럼 배가 도착하는 곳들은 바로 하나의 항구가 있는 것이고 항구를 중심으로 나라가 발전되었으니까 그곳은 바로 해양폴리스이며 나루국가인 것이다. 인천이 그렇게 시작한 것이다.

고구려는 동아시아중해의 중핵조정 역할

내가 주장하는 동아시아중해 중핵조정역할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민족의 통일, 그 다음 대륙의 일부지역을 차지하고 양 삼면의 바다를 장악했을 때 동아시아중해의 코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한 나라가 고구려였다.

광개토대왕의 능비에 의하면 396년에 한성을 칠 당시 수륙양면 작전을 전개했는데 제1로군이 현재의 한강을 통해 한성까지 공격을 하고 제2로군은 인천항에 상륙하여 한성으로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고구려가 경기만을 장악한 이유는 동아시아중해의 중핵역

할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즉, 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황해중부 이북의 해상권과 동해중부 이북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중핵역할의 정치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가 경기만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시 분단된 북경정권과 상해정권을 대상으로 등골의 정치를 펼치고 나아가 오늘날 러시아에 해당하는 북쪽과 상해정권을 연결시켜 북경정권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제, 신라, 가야 외의 주변세력들이 세계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해상에서 봉쇄하게 되어 정치, 외교적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바닷길을 차지하게 되면서 물류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만은 바로 이러한 바닷길을 통해 모든 물류망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문류(문화)와 인류(사람) 역시 몰려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물류, 문류, 인류가 만나는 인천, 경기만 지역은 매우 중요한 곳이다. 즉, 고구려는 경기만을 장악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 지리는 정치다. 지경학이다. 지리는 경제다. 지경학이다. 지리는 문화다. 지문화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연환경 속에 있다. 따라서 이곳 인천은 과거부터 물류의 중요한 집산지였으며 이것이 바로 인천을 둘러싼 환경인 것이다.

인천은 동아시아중해의 중핵

요약하면 21세기는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는 공동체 형성이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지역과 중국지역과 일본지역 간의 경쟁과 협조의 관계는 불가피 하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인 강소국이므로 동아시아에 공동체가 수립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종속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원만한 공동체의 수립을 위해서나 적어도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덜 종속적인 상태에서 공동체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중해라는 개념과 모델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델 속에서 경기만, 그 중에서도 인천이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인천을 핵으로 한 경기만 지역이 동아시아, 동아시아중해의 중핵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가 수립될 때 동아시아의 중심은 한국이고 그 중에서도 중심은 경기만이고, 경기만 중에서도 바로 이후에 해당하는 곳이 인천이다. 솔직히 경기만 전체가 가능하지만 현재의 입장으로 볼 때, 그리고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대를 놓고 볼 때 인천이 야말로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人間

2050 · 3060 데이트

나도 고엽제 환자, 국익 되면 파병해야 전쟁은 인간성 파괴, 미국이 준 혜택은?

[3060데이트] 정기인 한양대 교수-이수효 평화박물관 활동가

30대와 60대가 만나면, 말이 안 통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분명 세대 차이는 있다. <오마이뉴스>와 인간개발연구원은 공동기획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세대간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2050 · 3060데이트 시리즈로 지난 호에 이어 3060데이트를 마련했다. 아버지와 딸 세대,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보고 있을까. 정기인 한양대 교수와 이수효 평화박물관 상임활동가가 만나 전쟁과 이라크파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편집자 주

부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전쟁의 종전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라크에서의 총격은 계속되고 있고, 미군의 이라크 포로 '성학대' 같은 흉측한 소식도 끊이지 않는다. 인류에게 전쟁은 무엇인가.

정기인 교수는 피부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겪은 '전쟁피해산증인'이고, 이수효 상임활동가는 증언과 기록으로 전쟁의 참상을 전달한 평화운동가이다. 두 사람은 '전쟁과 이라크 파병'을 화두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 교수는 "지금 전쟁이라면 치가 떨린다"면서 "너무 굵어 영양실조 학질에 걸린 세대가 바로 60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효씨는 "제가 직접 전쟁에 참가해본 경험은 없지만, 저라면 내가 왜 이런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가 한편으로 자괴

감이 들었을 것 같다"며 "한국의 젊은이가 남의 나라 전쟁에 투입돼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다음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정기인 나는 한국전쟁 때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먹을 게 없었거든... 너무 굵어서 영양실조, 학질에 걸렸어요. 전쟁이라면 지금도 치가 떨려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우리 60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고요.



서울대 영문과를 다니던 나는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입학원서까지 다 받아냈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 갔다와야 유학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유학을 군 기피 도구로 삼는다, 그 말이지. 그때 나는 기왕에 군대 가는 거라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하면서 해병대 장교모집에 지원했어요. 소대장이 됐지. 그렇지만 내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66년... 전사자 보충으로 베트남에 발을 디뎠지요. 그때 지원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무조건 가는 거지. 그때 내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참전했던 전투에서 가장 치열했던 게 팡나이성 출라이 지역이에요. 베트콩의 저항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은 곳이었어요. 나도 거기서 싸우다 피해 입은 고엽제 환자예요. 2년간



전쟁을 치르고 베트남에서 돌아온 뒤로 난 한번도 베트남에 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말이야, 너무 큰 상처가 있으면 피하고 싶은 법이거든. 쳐다보기도 싫어요. 난 이 전쟁기념관도 처음 와 봐. 잘해냈네.

이수효 전쟁터에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방어심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민간인을 죽여야 하는 상황도 있었을 것 같고,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전쟁기간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인 내가 소대장이었으니까 나보다는 부하 살리는 게 더 중요했지요. 부대원을 살려야 한다..., 지도자의 논리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양민학살이 있었어요. 팡나 이성 밀라이촌..., 여기는 한국군이 관리하다 미군에 넘긴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 벌어진 양민학살은 미국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지요. '미국만세'를 외치던 민간인 사이에 숨어있는 베트남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이수효 지난해 베트남에 갔다가 밀라이촌 민간인 학살을 목격한 할아버지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었어요. 그분이 눈물을 펴



평 쏟으며 당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요. 어린이와 노인들이 미군에 의해 어떻게 죽어갔는지... 너무나 끔찍했어요.

정기인 영화에서는 군인들이 멋있게 양민을 구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피를 보면 사람의 눈이 뒤집히거든. 적을 제압해야 한다는 논리만 생각하게 돼요. 나는 그때 베트남들이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쓴 게 아닌가 싶어요. 분명 애들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거든.

이수효 제가 직접 전쟁에 참가해본 경험은 없지만, 저라면 내가 왜 이런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가 한편으로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젊은이가 남의 나라 전쟁에 투입돼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정기인 그때는 반공정신이 투철했지요. 지구상에서 공산주의자를 박멸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았으니까요. 나도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데모를 열심히 했어요. 이부영, 한광옥 다 그때 친구들이지요. 그러나 일단 군대에 들어간 이상 나는 군대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수효 지금도 공산주의자를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기인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지요. 이미 이데올로기는 지구상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빨갱이도 없고, 흰둥이도 없어. 북한도, 빨갱이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아주 독특한 집권체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낡은 이념을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햇볕정책을 지지합니다.

이수효 전쟁은 인류를 말살시키는 아주 흉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쟁을 막을 대안이 없을까요?

정기인 인류가 존속하는 한 전쟁은 계속 될 겁니다. 전쟁은 상층부 게임의 논리거든요. 밑의 사람들은 그저 그 논리에 끌려 다닐 뿐이지요. 우리가 전쟁에 대해 비평할 수는 있지만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전쟁이 끝나면 엄청난 개혁이 뒤따라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매우 비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수효 전쟁은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논리대로 전쟁이 국가와 국가간의 게임이라면

약자들의 고통은 대물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자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이 먼저 드는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기인 이라크전쟁은 내가 겪은 베트남전쟁에 비하면 배낭여행으로 놀러 가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베트남에 도착하는 그날부터 전투를 했거든. 국가경영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판단할 때, 우리는 '이기는 파워'에 몸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은 패전한 베트남전쟁에서도 경제부흥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뻔히 이기는 전쟁이라고요. 고기가 많은 연못에 메기 몇 마리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테러위협은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지요.

이수호 베트남전쟁에 우리 군 32만 명이 갔습니다. 파병으로 인한 경제특수가 있었지만 2만 명이 고엽제 환자가 됐습니다. 1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지만 국가가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죽음과 피해를 고속도로 만든 것과 등치 시킬 수 있습니까?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트남파병이 우리에게 정말 남는 장사였나, 전 회의적이에요. 베트남전쟁에 32만 명이 파병됐지만 우리가 미국에게 받은 혜택이 무엇입니까. 미국 말 잘 들었지만 SOFA 등 우리의 대미종속은 심화됐습니다. 이제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외교력을 가져도 되는데 아직도 위정자들은 종속적으로 일관합니다. 저는 그 점이 참 답답합니다.

정기인 이라크 파병은 우리에게 얼마의 국익이 생기느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진사회의 리더국가 가 되기 위해 파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30년간 고엽제후유

증을 앓았지만 국가에서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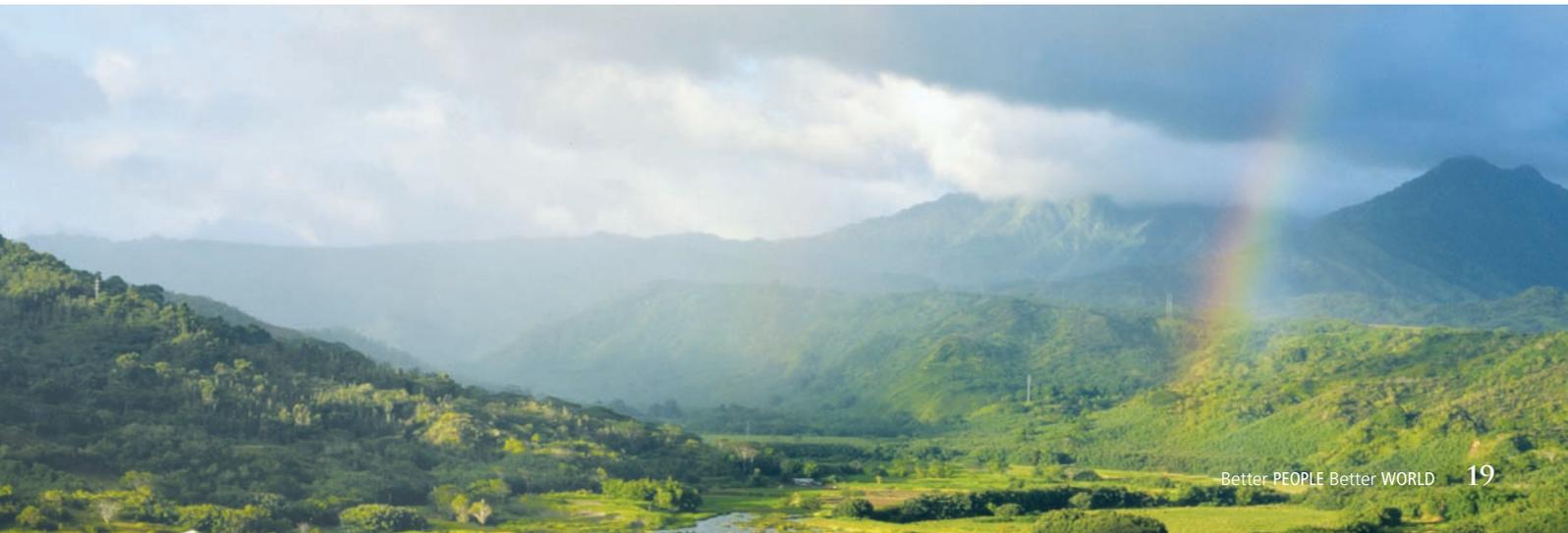
그렇지만 내가 이제 와서 30년 전 과거를 들춰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파워게임에서 승부를 걸만하다면 가서 싸우라는 거죠. 이번 이라크전쟁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황제 수준의 보상을 해주면 돼요. 국가가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상해라 이런 거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누릴 전후 경제특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수호 글세... 아무리 들어도 선생님 견해에 제가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생님 연배가 저희 부모님세대와 같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빨갱이는 모두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베트남전쟁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됐으며, 이라크전쟁은 국익을 위해 반드시 참전해야 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전 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혹하기 짝이 없는 전쟁에 인간성을 상실하면서까지 가서 싸워야한다는 논리에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기인 그래요. 나도 전쟁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나도 20년간 전쟁공포증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고엽제가 사람의 뇌에 침투해서 소심증, 공포, 불안, 불면증 같은 걸 느끼게 하거든요. 지금도 진저리가 쳐져요. 전쟁만 생각하면..., 그러나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할 수 없죠. **人間**



경영자는 4차원의 생각으로 미래를 열어야

20 세기까지 인류는 대부분 땅이나 물건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았다. 의식주의 기반이 되는 토지와 상품을 대표하는 화폐가 사람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1세기는 토지나 화폐보다 사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 시대이다. 그 중에서도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 이 모두를 지칭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21세기를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될 개척자이자 선구자들이다. 그러므로 기업이나 정부를 포함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떤 조직체에서도 사람의 중요성은 더없이 커지게 되었다. 경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토지나 화폐보다 인적자원이 더 중요시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를 갖고 미래를 예측해나가는 현대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과거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야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어야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다.

21세기는 4차원의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때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4차원의 새로운 사고를 펼친 위대한 인물이었다. 지금부터 백여년 전 일이다.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산수 선생님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가르쳤다. 공책에 여러 종류의 삼각형을 그린 다음 내각의 합을 재면 어느 것이나 180도가 된다는 사실로 이를 증명시켰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증명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자연 선생님의 가르침이 그 계기가 되었다. 자연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 지구본을 놓고, 지구는 공처럼 둥글며 공전과 자전을 한다는 것, 결코 편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유태인 집안 아이라서 친구가 별로 없었다. 이로 인해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방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호기심에 부모님이 사준 지구본 위에 삼각형을 그렸다. 그리고 내각의 합을 재어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내각의 합은 180도가 아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는 삼각형마다 각도가 달랐으며, 어느 것이나 180도에서 270도 안의 값을 가진다는 공통점만이 있을 뿐이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당황했지만 스스로 실험한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아인슈타인은 다른 아이들처럼 선생님이 가르치는 결론을 무조건 암기하지 않게 되었다. 사물을 보는 아인슈타인의 혁명적 사고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장명국
 (주)내일신문 사장

1947년 생 / 70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98년~99년 (주) YTN 사장 / 98년~현 민해사 상실선선양회 수석대표 / 00년~02년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회장 / 02년~현 (주)내일신문 사장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편평하다 믿었다. 그러므로 대다수 사람들은 평면적인 2차원을 대표하는 토지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 때문에 땅 따먹는 싸움은 부족과 민족의 운명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땅을 차지하려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은 부지기수로 희생되었다. 이후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같은 과학자가 잇따라 나타나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논증했고, 콜럼부스와 마젤란 같은 탐험가들이 목숨을 걸고 대양을 횡단함으로써 이를 입증했다. 마침내 유럽이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었다. 지구는 편평하다는 2차원의 생각을 지구는 둥글다는 3차원의 생각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

3차원의 생각이 일반화되면서 산업혁명이 전개되었다. 사람들은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상품을 생산할 수 있었고, 그로써 시장경제가 일반화되었다. 3차원의 상품생산이 2차원의 토지소유를 뛰어 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주자, 이른바 총체적 상품이라 할 수 있는 화폐의 중요성이 날로 커졌다. 이윽고 화폐는 노동력까지 상품화시키면서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사상을 낳게 되었다. 르네상스가 고양시킨 인본주의는 한낱 추상적 가치로만 남게 되었다.

2차원은 토지, 3차원은 상품, 4차원은 시공간이 중심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3차원의 사고를 전복시켰다. 그는 절대적인 시간이나 공간은 없으며, 상호관계 속에 변화하는 시공간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중력장의 힘에 의해 휘어지는 우주공간이 실제로 관측됨으로써 세상에 받아들여졌다. 아인슈타인의 등장으로 세상을 보는 눈은 한 차원 높아졌다. 사람들은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2차원의 평면적 사고나 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3차원의 공간적 사고를 뛰어넘기 시작했다. 시공간의 4차원으로 사물과 인간과 사회를 보는 관점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이제 개인의 삶에서나 기업을 경영하는 데서나 정치 활동을 하는 데서나 올바르게 성공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결 같이 중요한 관점이 되었다.

초기의 기업인들은 모든 사물을 가격이나 품질과 같은 양 또는 질의 문제로만 따졌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인들은 가격·품질보다 서비스·기업문화·분위기와 같은 장(場, field)이라는 개념이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감성적이건 논리적이건 세상이 4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장은 수학에서는 집합을, 남녀관계에서는 무드를, 그리고 직장에서는 분위기를 의미한다. 물리학의 시공간이라는 개념도 이와 같은 것이다. 장은 일방적인 것도, 쌍방향적인 것도 아니며,

말하자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통하는 온방향적인 것이다.

국가 지도자들 또는 기업 경영자들, 그리고 크고 작은 다양한 사회조직의 리더들은 이러한 관점을 지니지 않는 한 21세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4차원의 사고를 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인 직장과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을 상대성이론이라 불렀다. 그는 이러한 명칭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상대와 함께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가르친다.

경영자는 장 속에서 새로운 전망을 창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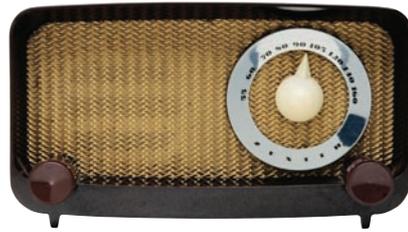
아인슈타인은 예를 들어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가면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석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삶은 곧 새로운 삶, 성공하는 삶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물리학에 적용하여 질량과 에너지 전환의 법칙, 즉 $E=mc^2$ 을 인류에게 선물했다. 이 법칙은 장 속에서 물질의 속도를 이용하여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실험을 통해 빠른 속도에서는 원자폭탄과 같은 에너지가, 느린 속도에서는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가 나왔다. 이로써 아인슈타인은 오늘날 인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21세기 들어 그러한 사고 전환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발전한 두 산업이 있다. '빠르다'를 대표하는 정보통신산업과 '느리다'를 대표하는 생명공학산업이 그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은 빛의 속도로 달리는 전자를 이용해 삶의 수단을 혁신시키고 있다. 그리고 생명공학 산업에서는 노화 DNA를 느리게 운동시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이들은 모두 시간의 탄력적 개념을 터득하여 공간의 변화에 응용함으로써 시공간적인 4차원의 새로운 사물과 삶으로 나아간 사례들이다.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21세기에 사물을 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눈이며 지혜이다.

필자가 YTN 사장으로 일하던 98년도는 외환위기로 인해 무척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 회사는 매출을 세 배 이상 높여야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다. 필자는 새롭게 해석한 마케팅이라는 개념으로써 이를 극복하려 했다. 시장(market)이라는 공간에 현재진행형인 ing를 붙이면 시공간의 4차원적인 마케팅을 실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4차원적인 마케팅에 전력한 결과 YTN에서는 우선 직장 분위기가 혁신되었고, 이어 3개월만에 매출이 3배로 높아졌다. 또한 주 간지에서 일간지로 전환한 내일신문에서도 무차입 흑자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3년만에 매출이 다섯 배로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 역시 일찍이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4차원의 관점을 기업 경영에 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人間**

회원소식



• **교보증권**은 5월 21일 **주주회**를 열고 신임 사장에 송종 전 교보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또 사외이사에는 김영기 전 하나은행 상근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 **한국아쿠르트(대표 김순무)**는 고급 녹차의 풍부한 향과 메밀의 구수한 맛, 기능성이 조화를 이룬 건강지향의 **기능성 메밀녹차음료 '기다림(氣茶林)**을 출시하였다. 이 음료는 메밀의 구수함으로 기존 녹차음료의 씁쓸한 맛을 개선하였으며, 콜레스테롤과 혈압, 혈당을 저하시키는 루틴 성분이 일반메밀에 비해 100배 이상 함유된, 해발 2000m 이상의 청정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메밀로 만들었다.

• **대우인터내셔널(대표 이태용)**은 지난달 15일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토요일**'행사를 가졌다. 이날 임직원들이 기증한 2천여점의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 양재점에서 판매했으며, 벌어들인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성금으로 전달하였다. 이 행사에서 이태용 사장이 평소 아끼던 버루 등 39점을 기증했으며, 가수 조덕배의 사인이 담긴 CD 등 연예인들의 기증품도 행사용 물품으로 나왔다.

• **우먼타임스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 명품 대상" 시상식**
여성종합신문(우먼타임스)가 창간 3주년을 맞아 지난달 5월 28일(금) 조선히에서 제 4회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 명품 대상"을 시상하였다. 여성소비자가 선정한 좋은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현명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 **강원석 기업은행장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런던, 뉴욕, 보스턴에서 최근 경영성과와 중소기업 경기동향을 해외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였다.

• **광동제약(회장 최수부)**은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웰빙 에너지 드링크 음료인 **광동'아미노산'**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광동'아미노산'은 인체의 주요 구성 영양소인 단백질의 합성에 필요한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혼합음료로 기존 경쟁사 제품에 비해 ml당 아미노산 함량을 높였으며, 특히 맛도

철저히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차별화 함으로써 많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 내년 3월에 강원도 홍천군에 문을 열 사단법인 '**건강100세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이시형 박사**가 취임하게 되었다.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일대 13만평의 자연림 속에 자리 잡을 이 연구소는 강원도, 홍천군, 강원대와 의료계가 협력해 설립한다. 30실 규모의 숙박시설은 물론 교육, 연수시설, 자연식물원, 생태시험장, 무공해 유기농 채소를 기르는 텃밭 등이 들어선다. 이시형 소장 등 연구소 설립에 참여한 인사들은 지난달 말 현지에서 개토식을 했다.

• **삼성석유화학 허태학 사장**이 지난 5월22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리더십학회 주관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리더십 대상'을 수상했다. 리더십 학회가 올해 처음 제정한 이 상은 우리 사회와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리더 또는 기관을 발굴해 수상하는 것으로 허 사장이 첫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허태학 사장은 지난 해 1월 삼성석유화학의 사령탑을 맡아 강력한 혁신 활동에 서비스 경영을 덧붙여 '혁신의 마스터(Master of innovation)'란 별칭을 얻었으며 업종에 관계없이 고객만족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의 고객만족경영 모델을 창출했다.

사무실이전

대화광고(주) 권기식 사장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3동943-15 시몬빌딩
전화 : 02-564-8804

주소변경

MMG(주) 최규일 대표이사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0-1 1층
전화 : 02-562-9840 팩스 : 0505-555-9850

삼가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주)다산 정대규 부사장님의 모친께서 지난 5월 6일에 별세하였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규회원

이태용 대우인테리어사장 (법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4월 30일
- 등록임원 : 강영원 부사장, 김용길 부사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 대우빌딩
- 전 화 : 02-759-2030
- 팩 스 : 02-759-2035
- 주요사업 : 국제무역, 해외자원개발, 국내외 투자사업, 해외프로젝트 등
- 추천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이대봉 참빛그룹 회장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5월 13일
- 주 소 : 서울 용산구 남영동17-1 동아빌딩
- 전 화 : 02-790-0036
- 팩 스 : 02-790-8656
- 주요사업 : 도시가스, 골프장, 항공화물
- 홈페이지 : www.eaecargo.co.kr
- 추천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김성환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5월 20일
- 주 소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3-1
- 전 화 : 02-940-4426
- 팩 스 : 02-940-4192
- 홈페이지 : www.k-managenemt.re.kr
- 추천인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배영호 동양종합금융증권 상무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5월 25일
- 주 소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5
- 전 화 : 02-3770-2665
- 팩 스 : 02-3770-2353
- 주요사업 : 금융업
- 추천인 : 이두호 한국자금중개 사장



김수경 (주)지엠에프 명예회장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4월 29일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0-6 동양빌딩 7층
- 전 화 : 02-517-5907
- 팩 스 : 02-3446-0631
- 주요사업 : 생식 및 건강기능 식품 제조
- 홈페이지 : www.gmf.co.kr
- 추천인 : 웰코스(주) 김상희 회장



차중근 (주)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5월 28일
- 주 소 : 서울 동작구 대방동 49-6
- 전 화 : 02-828-0102
- 팩 스 : 02-828-0120
- 주요사업 : 의료 약품
- 홈페이지 : www.yuhan.co.kr
- 추천인 :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



홍태선 (주)중외메디칼 대표이사 사장 (개인회원)

- 가입일 : 2004년 5월 28일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98
- 전 화 : 02-2109-7802
- 팩 스 : 02-852-0565
- 주요사업 : 진단방사선(X-RAY) 수술장비 제조, 도, 소매업
- 홈페이지 : www.cwm.co.kr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전상백 대표이사	(6월 1일)
(주)고속도로정보통신	전선희 고문	(6월 1일)
동남갈포공업(주)	서병식 회장	(6월 5일)
기네스리그룹	이왕열 회장	(6월 5일)
(주)대양파이프	곽창선 사장	(6월 7일)
(주)테크노랜드	서정환 사장	(6월 13일)
(주)맥산	김진택 사장	(6월 17일)
(주)정림건축	김정철 명예회장	(6월 17일)
(주)인포디스크	박용택 사장	(6월 20일)
유풍무역	조재우 대표이사	(6월 24일)
(주)금천코퍼레이션	강연구 사장	(6월 24일)
대성광업개발(주)	김영돈 부사장	(6월 25일)
(주)소예	이상숙 회장	(6월 27일)

회원가입안내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특별회원 : 年 \$ 5,000 (6인이상)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우리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41-502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연구원소식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제 1그룹 (회장 유상옥 /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5월 30일 오후 7시 남포면옥에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 이종기업동우회 제 2그룹 (회장 전순표 / 세스코 회장)은 다음과 같이 정기골프모임을 갖습니다.

- 일시 : 6월 1일 (화) 오후 1시
- 장소 : 이스트밸리 C,C
- 문의 : 최우영 간사 (T. 02-424-5672)

• 이종기업동우회 제 4그룹(회장 김용희 / 총무 권희설)은 지난 5월 11일(화) 오후 7시 서초동 하림에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 모임은 7월13일(화)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경회(회장 이심 / 총무 윤건우)는 5월 11일(화) 오전6시 한양C.C에서 부부동반으로 골프행사를 가졌습니다.

• 지중해클럽은 5월 19일(수) 오후 7시 이태리안 레스토랑 '라쿠치나'에서 제 29차 5월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 행사는 6월 17일(수) 오후 7시이며 장소 등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중해클럽이 다음카페에 개설되어 있으니 지중해클럽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19일 이태원 라쿠치나에서 가진 지중해클럽 29차모임

• YCF(회장 김상래 / 성도GL 사장)는 지난 5월 20일 명동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5월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정진호 경쟁력평가원 원장님께서 '200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으며 강연 후에는 친목을 도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6월 정기모임은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2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YCF 5차모임

행사소식

차이나클럽(회장 홍순영 전 외교부장관/총무 이두호 한국자금중개 사장)지난 4월왕윤곤 길림성당서시장 초청세미나 이후 아래와 같이 6월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차이나클럽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자 : 6월 15일(화) 오전7시~9시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별부름
- 주 제 :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방향과 시사점
- 강 사 : 오진용 박사(현 포항제철 자문위원)

• 본 연구원은 **길림성 조선족 경제과학기술인진흥총회(회장 유천문)와 결연을 맺기로 합의**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장만기 회장과 차이나클럽(회장 홍순영/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요 회원 세명이 방문하여 정식으로 조인식을 하였습니다. 조선족 경제과학기술인진흥총회는 약 3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성공한 분들로 민족문제에 관심이 많고 조국의 발전에 대해서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지회에는 경영자연구회를 초기에는 월1회, 6개월 이후에는 월2회 국내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만기 본 연구원 회장은 중국 명문대학의 하나인 동북사범대학에서 특강키로 되어 있으며, 겸임교수로 위촉되었습니다.

• **2004 제1회 한일국제노동포럼**

본 연구원은 일본의 청년실업 극복 사례연구를 통하여 교육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보다 입체적인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고자 지난 5월 13일(목) 오후 2시~6시까지 한국 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1회 한일국제노동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모시고 [실업대란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이번 행사는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재단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한국경제신문과 에어랩(주) 황진수 사장의 후원으로 이뤄졌습니다. 다시 한번 협찬과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 연구원은 "2004 밀레니엄 제주 섬머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5월 18일(화) 오전7시에 롯데호텔에서 사전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밀레니엄 경영자 제주섬머포럼 개최

- 일 시 : 2004년 7월21일(수) ~ 24일(토)
- 장 소 : 제주 사인빌리조트
- 주 최 : 인간개발연구원
- 참가비 : 회원 110만원 비회원 130만원

최고 경영자들의 하반기 경영전략 구상과 휴식을 위한 『2004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이 오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 사인빌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사인빌리조트는 드라마 올인, 슈퍼모델선발대회, CF 촬영 등 각종 방송에서 촬영지로 선호하는 등 해변과 맞닿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이번에 특별히 연구원과의 긴밀한 제휴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는 이희범 신자부 장관,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이시형 의학박사, 문정인 연세대 교수, 전유성 개그맨, 최명재 파스퇴르 유업 회장, 홍혜걸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합니다.

학습과 아울러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풍요로운 삶의 빛깔", LMI e-letter 발송

오래 전 같이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조차 흐릿해진 그 때 그 사람! 그 동안 LMI와 인연을 맺지는 못했지만 저마다 다른 빛깔의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다음과 같은 주제로 "풍요로운 삶의 빛깔"이라는 이름의 e-letter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1주차 : 이 사람의 꿈이 궁금하다
- 2주차 : LMI가 이야기하는 풍요로운 삶의 비결
- 3주차 :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Dream ING!
- 4주차 : 당신의 삶을 가꿔드립니다

• **명동지사 LMI 교육과정 수료자 정기모임 안내**

1. "리더의 스피치", 조동춘 박사 초청 강연
 - 일 시 : 2004년 6월 14일(월) 오후 6시30분 (매월 둘째주 월요일)
 - 장 소 : LMI 명동지사 교육장
 - 강 사 : 조동춘 박사 / 밝은 가정 협의회
 - 주 제 : "리더의 스피치"

2. 6월 정기 등산회 안내(매월 1회 실시)

- 일 시 : 2004년 6월 19일(토) 오후 2시
- 가 는 곳 : 청계산
- 집 결 지 : 청계산 옛골 (78-1번 종점)
- 참가대상 : LMI 수료자 및 가족
- 신청기간 : ~ 6월 5일까지

■ **LMI 교육프로그램 소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내용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계획 프로세스와 실천 훈련 과정임.
기간 : 16주간, 주1회 일정요일, 2시간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내용 : 조직생활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임. ※석세스플래너 포함
기간 : 9주간, 주1회 일정요일, 3시간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내용 :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 순위에 따름으로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임.
기간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to.co.kr

한국엘엠아이(주) (잠실본사)

(T) 2202-8700 (F) 2203-8050 (H) www.lmikorea.com

천년제국 로마로부터 배우는 지혜와 리더십

황금 분할. 지난 4.15 총선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간신히 넘김으로써 집권당은 여당 노릇을 겸손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야당도 견제 기능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초선의원의 대거 등장과 진보정당의 출현으로 국정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여기에서 중국 경제가 최근 들어 약간의 고전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룩한 비약적인 발전을 토대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중국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라 우리가 언제 중국에게 추월 당할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고임금, 불안한 노사관계,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기업을 하기가 어려워 중국으로의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은 불안하면 투자를 꺼리게 마련이다. 언제쯤 경기가 살아날지 모르는 가운데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동북아중심 국가건설이나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는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기까지 한다. 선진국의 품질경쟁력과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가격경쟁력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우리경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의 정치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천년제국을 건설했던 로마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로마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대국으로 존속하고 유지된 국가이다. 로마가 이탈리아의 작은 반도 국가에서 시작하여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첫째로 로마인들의 관용주의와 열린 사고를 들 수 있다. 로마의 지도자들은 정적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고 다른 민족과 싸울 때는 패배자까지도 로마화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로마제국의 청사진을 제시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이다. 그가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하여 최고권력자가 된 후 내세운 정책이 바로 클레멘타리, 즉 관용이다. 귀족과 평민 그리고 내전에서 승리와 패배자가 서로를 포용하고 인정함으로써 보복의 악순환을 막자고 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부하들이 만들어 준 살생부를 즉시 소각하고 포용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인재도 능력에 따라 고르게 등용하였고, 자신과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과감하게 발탁하여 화합의 정치를 이루었다.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도 현지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식민지 출신이 로마의 황제에 오르기까지 했다.

둘째는 법과 제도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로마인들은 정책이 사람의 자의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였다. 우선 로마본국과 식민지의 원활한 통치를 목적으로 로마가도, 로마법, 로마달력, 로마통화를 공유하면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혁신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환경변화에 적응시켜 나갔다.

셋째는 지도자들이 경제를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카이사르가 착수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완성한 화폐개혁에서 보듯이 경제인은 정치를 이해하지 못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경제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로마의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갔다. 관세정책도 경제수준과 상품의 속성에 따라 다변화하였다. 본국 이탈리아는 5%, 저개발지역엔 1.5%, 동방의 고급품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하였다.

넷째로 들 수 있는 특성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가진 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함께 남다른 의무가 지워졌다. 지도자가 평민과는 달리 특권을 양보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술선수범하면서 부를 사회에 환원할 때 존경받을 수 있었다.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재임 중에 국가가 어렵거나 돈이 필요할 때 개인 돈으로 국고를 네 번이나 지원했다. 또한 그의 딸과 손녀가 법을 어기자 가차없이 유배형에 처하여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밖에 기록을 중시한 점을 들 수 있다. 기원전에 원로원에서 원로원 의원들이 신랄하게 논란을 벌인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무엇이든 기록으로 남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를 이룩하였다. 이런 특성은 군대에서도 잘 나타나 교본을 만들어 메뉴얼화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로마 군대의 평균속도까지 세 종류로 분류하여 평상시 행군은 5시간 25킬로, 강행군은 7시간 30~35킬로, 최강행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의 거리를 행군해 간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풍부한 기록물 덕분에 일본계 이탈리아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라는 세계사에 남을 대작을 집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무장된 로마제국도 말기에 이르러 지도자의 리더십 부족으로 쇠락의 과정에 들어선다. 특히 3세기초의 카라칼라 황제의 인기영합주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였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까지 허용하여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원래 식민지 출신이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군대에 가서 봉사를 한 후에야 주어졌는데 이것을 누구에게나 부여하였으니 희소성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또한 속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의 파탄을 초래하여 제국을 사양길로 몰아넣었다. 권리란 일단 부여가 되면 그것을 돌리기란 어려운 법이다. 황제 한 사람이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임기응변적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영원할 것 같던 로마제국도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거센 파고가 몰려오는 가운데 세대간 이념간 노사간 갈등요인이 표면화되고 있다. 갈 길은 멀고 밤은 깊어가고 있기에 국가 장래에 대한 근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개방성과 다양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문제의 해결책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획일적인 사회보다는 건강한 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에서 독불장군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해서는 곤란하다. 적극적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역사는 늘 현명한 선택을 한 민족에게 번영의 기회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천년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한 로마인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도 소중한 참고가 되리라 본다. **人間**

노화예방에 좋은 음식



최근 우리사회에 웰빙 붐이 일면서 더욱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의학 전문가들의 건강에 대한 조언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다.

- 편집자 주

건강 한 삶과 장수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유사 이래 지속되어온 것이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삼천 동자를 각지에 파견한 진시황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장수를 바라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를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일례이다. 그러나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나이 들며 몸이 노쇠해지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최근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으로 항산화 물질이 주목받고 있다. 노화 원인 중 하나가 신체 '산화'라고 한다면 산화과정을 막는 항산화제는 분명 노화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항산화 물질 풍부한 비타민, 녹차, 마늘, 포도주가 노화 늦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이 있는데 마늘, 양파, 와사비, 무 등의 야채와 포도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녹차, 홍차 등의 차를 꾸준히 마시면 노화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차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노화를 촉진시키는 유해산소를 막는다.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한 천연 식물로는 콩, 참깨, 녹차, 울무 등이 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칼슘이 점차로 빠져나가는데, 뼈에 바람이 든 것처럼 뼈 조직에 구멍이 생기면서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적인 질환을 야기하기도 한다. 골다공증을 막으려면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미역, 무말랭이, 참깨, 우유 등을 먹는 것이 좋다. 미역국은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주며, 무말랭이 무침은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다. 콩은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다. 콩은 아스파라긴산, 티로신, 로이신 등 각종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글리코겐의 보고이기 때문에 잃었던 기력을 되찾을 수 있다.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는 다시마는 각종 무기질과 칼슘이 풍부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노화방지에 좋은 음식으로 목이버섯을 빼놓을 수 없다. 목이버섯은 예수를 팔아 넘긴 유다가 목을 맨 나무에서 자랐다해서 '유다의 귀'라고도 부르는데, 목이버섯에는 훌륭한 항 노화작용이 있으며 피를 맑게 하고 위장과 폐의 기능을 보강한다. 이와 더불어 피부까지 좋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 장년 이후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의 건강에 더없이 좋은 먹거리이다.

싱겁고 약간 모자란 듯 먹으며, 긍정적 사고가 노화예방의 열쇠

건강하고 짧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는 소망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이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병과 뇌의 노화를 막는 식품을 충분히 먹고 영양의 균형이 제대로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식사시에는 조금 모자란 듯 싶게 먹고 싱겁게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 적당히 몸을 움직이고 피로가 느껴지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노화방지의 열쇠이다.

이 진 원장이 권하는 10가지 노화방지 식습관

- ▶ 당근이나 호박 같은 녹황색 채소를 즐겨 먹어야 한다.
- ▶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천연식품을 먹어야 한다.
- ▶ 육류는 되도록 적게 먹는다.
- ▶ 생선을 많이 먹되 뼈까지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이 더 좋다.
- ▶ 콩으로 만든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
- ▶ 설탕과 염분의 섭취를 가급적 줄인다.
- ▶ 기름은 식물성 기름으로 먹어야 한다.
- ▶ 깨를 많이 먹는다.
- ▶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 ▶ 저 칼로리 섭취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人間

이진 라 끄리닉 드 파리 by 리&윤 원장

1969년 생 / 95년 이화여대 의과대학 졸업 / 00년 가정의학 전문의 취득 / 02년 노인의학 전문의 취득 / 00년 아주대 의과대학 임상강사 / 00년~01년 美 콜롬비아 의과대학 임상강사, 뉴욕비만 연구센터 임상강사 / 01년~02년 포천 중문대 분당 차병원 임상교수 / 03년 이화여대 부속 이화의료원 외래교수, 라 끄리닉 드 파리 그랜드 힐튼 원장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과학 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우주의 역사는 150억년, 태양계의 역사는 50억년 그리고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 생명이 탄생된 것은 35억년이라고 한다.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된 이래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고 먼 나중에는 열매를 맺고 죽는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 속에 간직된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지속된다. 생명의 영원성은 물질불멸의 원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모든 물질은 존재의 양식이 바뀔 뿐이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창조주는 모든 생명체 속에 성공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았다. 남쪽 나라에서 날아온 제비가 새끼를 낳는다. 새끼 제비들은 남쪽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곳으로 날아가는 항로도 모른다. 그러나 다 성장한 새끼 제비들은 어미 제비들과 함께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기 전에 남쪽나라로 날아간다. 이러한 생명현상은 동물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식물 속에 간직된 생명의 성공 메커니즘도 시절을 따라 환경이 조성되면 그대로 작동한다. 고고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수천 년 전에 무덤의 어느 곳에 떨어져 있었던 씨앗 속에 간직된 생명이 발아되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한다. 눈에 보일까 말까하는 작은 장미 씨앗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 그렇게 세련된 디자인이 들어있는 생명의 신비를 시인이 아닌 필자와 같은 범인들도 감지 할 수 있다.

성서가 밝힌 지구역사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주가 만든 만물 위에 으뜸가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한다. 다시 말해 우주만물의 꽃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온 우주 속에 살아있는 온 생명이 인간존재 속에 간직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인간이 온 우주 속에 생존하는 온 생명의 질서를 따르면 살 수 있지만 하늘, 즉 우주의 생명질서를 거스르면 멸망하게 된다(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한다)는 사실을 밝혀 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왕세자로 태어난 석가모니가 참 자기를

찾는 고행 끝에 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는 위대한 自我省察을 하였듯이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인간가족인 당신이나 내가 참 당신과 참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과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관리하면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가 역사와 현재의 삶을 통해서 깊이 통찰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간직된 성공 메커니즘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줄 알고 실행한 사람들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남겨 유명해 졌지만 시간은 돈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시간은 바로 생명이며 삶의 원료인 것이다. '사람팔자 시간문제다'라는 말도 있지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 여기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을 정해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당신과 같은 사람, 당신을 대신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석가모니 부처가 존엄한 자아를 향하여 쉬지 않고 정진하였듯이 당신과 나는 최상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 경지에 한 눈금 가까워지도록 당신과의 약속을 매일 지켜 나가야 한다. '성공한다(Succeed)'라는 영어 단어에는 '계속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최상의 자아(Vision)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하고 자신의 직업적인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모습의 비전에 쉬지 않고 접근해 나갈 때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詩人 월리엄 포. 헨리가 "나는 나의 운명의 주인이자 내 영혼의 일등항해사이다"라는 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듯이 당신이 향유하게 될 당신의 성공이나 괴로움을 체험하게 될지도 모를 실패도 당신 자신의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탄핵정국 이후의 한국이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인간개발을 통해 보다 새롭고 좋은 나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생생하게 상상해 본다. **人間**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지금 까지 우리는 빠른 순발력과 눈치로 먹고 살아왔다. 돈벌이가 되는 것이면 즉각 모방, 흡수, 거기다 우리의 특기인 손재주를 가미하여 오리지널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참으로 기막히는 유연성,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기술 로열티, 장사는 그럭저럭 해 왔지만 큰 실속이 없다. 그리고 이젠 이웃에 경쟁자가 많이 생겨 그나마도 어렵게 되었다. 해답은 하나, 지금부터는 창의력이다. 물론 만만찮은 과제다. 딱하게도 우린 기본부터 안되어 있다. 반짝하는 아이디어만으로 걸작은 안나온다. 창의력엔 깊은 사색이 필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디에도 사색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사색의 상징, 대학 캠퍼스도 소음으로 넘쳐 난다. 세계 어느 대학에 스피커를 틀어 놓은 곳이 우리 말고 또 있을까. 대학 캠퍼스는 거길 거니는 것만으로 사색적이어야 한다. 책을 펼쳐 들고 나무 그늘에 앉거나 혹은 도서관, 연구실에서 독서에, 연구 기획에 몰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추위도 배고픔도 까맣게 의식 못한다. 완전 몰입이다. 문득 정신을 차려 보니 이미 밤이 깊고 그제야 목이 마르고 으스스

스 춥기도 하다. 아! 하지만 그 순간의 희열이라니! 정상의 기쁨이다. 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성취에의 기쁨이 온몸에 넘친다. 심리학에선 이런 순간을 흐름(flow)이라 부른다. 이젠 지적 자극과 도전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깊은 사색이 안겨다 주는 정상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과정이다. 인내와 고통의 과정이면서 또 한편 말

할 수 없는 희열과 보람을 얻게 되는 순간이다. 그러기에 그 속에 빠져 들 수 있다.

불행히 오늘의 우리 대학 분위기는 창조와는 거리가 멀다. 우선 너무 시끄럽고 동적이어서 도대체 마음이 안정되질 않는다.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사색이며 연구랴. 우리 대학 교육이 세계 주요국가 중 최하위권이란 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생활 주변은 더 시끄럽다. 자동차 경적 만인가. 온갖 잡상인의 스피커, 데모 행렬 등 도대체 편안한 기분으로 느긋이 길을 걷기도 힘들다. 지하철, 대합실의 소음도 폭발 지경이다. 샷대질 싸움까지 잠시도 생각에 몰두할 수 없다. 거기다 휴대폰은 아주 결정타다. 네 것 내 것이 없다. 사고의 흐름을 무참히도 단절해 버린다. 짜증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이래서야 깊이 생각하고 추론, 조합, 뇌 속의 용광로 기능 등 일련의 창조적 사고 과정이 작동을 할 수 없다.

깊은 사색 없이 창조는 없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 없이 선진국 진입은 허상이다. 거기다 우린 어릴 적부터 아예 사색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 모든 게 즉흥적이다. 참고 기다릴 줄 모른다. 생각을 깊이 안 해도 단추만 누르면 척척이다. 공부도 O, X 즉답식. TV 퀴즈처럼 순발력 시험이다. 편하고 쉬운 것만 하려한다. 사색이라니! 골치 아픈 생각을 왜 해? 그 뿐인가. 어른도 아이도 우린 너무 바빠다. 뛰면서 생각한다. 시간에 쫓겨 허둥대는 자에게 사색은 사치다. 그리고 아예 할 생각조차 안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자, 이젠 좀 차분히 조용히 생각 좀 하자. 물론 지식, 정보도 머리 속에 많이 넣어야 한다. 자료가 많아야 추론, 조합,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가 창의성,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人間**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한국성장의 뉴패러다임-화합과 상생의 한마당

최근 우리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기업의 생존전략 모색을 위해 『2004 밀레니엄 경영자 섬머포럼』을 오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드라마 올인의 촬영지로 유명한 샤인빌리조트에서 개최합니다. 학습과 아울러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최고 경영자들의 하반기 경영전략 구상과 휴식을 병행하는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 최 : 인간개발연구원 ● 기 간 : 2004. 7. 21(수) ~ 24(토) 3박4일 ● 장 소 : 제주 샤인빌리조트

제목	강사
7/21(수)	
2004년 성장의 뉴패러다임과 산업정책의 혁신 화합과 상생의 경영미학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쌍수 LG 전자 부회장
7/22(목)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과 세대간의 이해 5년 후 한국과 한국인-국제정치학적 전망 그리스 로마 신화 국가균형발전과 정부예산정책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윤기 소설가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7/23(금)	
이제는 여성이다 웰빙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금융인이보는 한국기업과 새로운 경영관 한국경제와 기업 이렇게 해야한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Full Story	권양숙 영부인 이시형 의학박사 윤병철 한국FP협회 회장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최명재 파스퇴르유업 회장
7/24(토)	
생로병사의 해법을 찾아서 50년 묵은 삼겹살 불판을 갈자 노벨상에 가장 가까이 간 한국인 과학자	홍혜걸 의학전문 기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황우석 서울대 교수
환영만찬 및 옵션행사	
21일	19:00-20:30 환영만찬-샤인빌 리조트의 해변과 접한 야외만찬과 음악회
22일	13:00-19:00 골프-캐슬렉스CC/일주관광-우도앞바다 선상낚시, 승마 등 20:30-21:30 즐거운 부부 SOCIAL DANCE 배워보기
23일	13:00-18:00 골프-해비치CC/일주관광 드라마 해안절경 유람선여행, 올인 촬영장 등

* 위의 프로그램은 아직 섭외중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참가비

- 회원사 : 110만원
- 비회원사 : 130만원 (1가족당 세미나 참가비)
- 교재비, 강사로, 환영만찬2인, 부인서비스, 세미나 진행 공통경비 포함
- 숙박, 항공, 관광, 골프 비용은 별도

2. 참가문의

- 인간개발연구원 밀레니엄경영자섬머포럼 사무국
- TEL : 02-2203-3500(내선2번), 직통 : 02-2203-7265 FAX : 02-2203-1974
 - 참가신청 접수 마감 : 7월 10일 (토)

3. 항공

구간	7월 21일/7월 24일	단체요금
서울-제주	QZ8931 12:10-13:15 QZ8930 14:00-15:05	156,320
부산-제주	QZ8150 12:25-13:20 QZ8110 14:35-15:30	121,940
대구-제주	QZ8123 11:20-12:20 QZ8218 17:00-18:00	134,720
광주-제주	KE1905 11:20-12:10 KE1908 14:20-15:05	109,520
청주-제주	QZ8235 13:10-14:10 QZ8234 15:30-16:30	138,320

4. 숙박

구분	비용
객실	디럭스룸 190,000원
	샤인스위트 250,000원 1박 요금 - 부가세 별도, 봉사료 없음, 샤인스위트(2실+리빙룸)
조식	성인 15,000원
중식	성인 20,000원
석식	성인 30,000원

가장 가까이 바다와 만나는 곳 -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



SHINEVILLE
LUXURY RESORT

서울 사무소 135-10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9-23 장석빌딩 4층 TEL 02 322 1500 FAX 02 3443 4206
샤인빌리조트 699-811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16번지 TEL 064 780 7000 FAX 064 780 7007
URL : www.shineville.com